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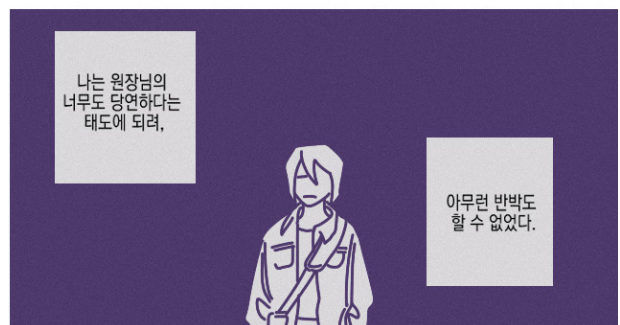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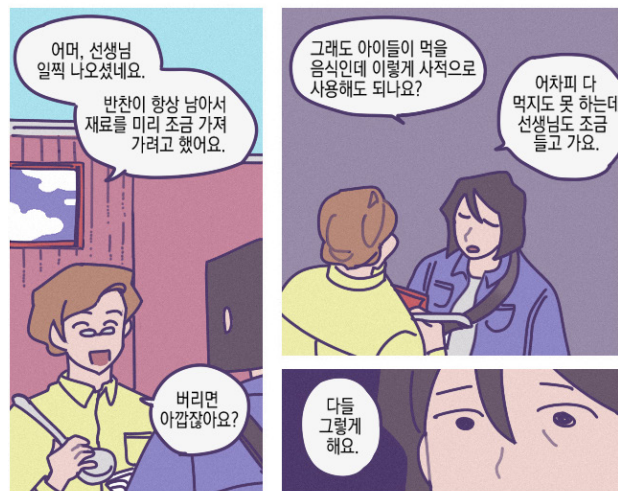
장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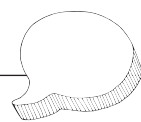


참 잘한 선택

이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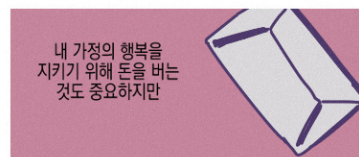






그러나 원장님의
또 다른 불법 행위들을
알게 된 나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



내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었다면,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라는 마음의 외침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을
운영 비리, 보조금 부정 수령에
관한 내용으로 신고하게 되었다.



참, 선생님 같은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공익신고
보상제도도 시행되고 있으니까

많이 홍보해주세요.

이 믿음직한
수사관의 찬사는

첫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졌던
나에게

부드럽, 그 이상의
보람을 선사해주었다.

이렇듯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특별히 어렵거나
대단한 일이 아니다.



요즘 이렇게 국가보조금
횡령이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해도

불이익이라도 갈까
쉬쉬하는 부모
교사들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 같이
양심적인분들의 신고 하나하나가
비리 없이 깨끗한 국공립어린이집을
만드는 시작입니다.



참 잘하셨어요, 선생님.



순간순간의 평범한
'참 잘한 선택'이 모여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깨끗한 사회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부모들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맡기죠.

철저하게 조사하고
척결하겠습니다.